

보도시점 : 배포 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: 2025. 9. 16.(화)

우리 기술로 만든 '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국제 표준' 제정

- 스마트도시 관련 국제 표준화 제정으로 플랫폼의 해외 수출 기반 마련 -

- 국내 기술로 개발된 “스마트도시 플랫폼의 실시간 이벤트 모니터링 및 통합 관리(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)*”가 ITU-T** SG20에서 국제 표준으로 '25년 9월 15일(월) 제정되었다.

* (영문명) Requirements for Real-Time **E**vent **M**onitoring and Integrated **M**anagement (EMM) in Smart City Platforms

** ITU-T : 전자·통신에 관한 표준을 진행하는 대표적인 국제 표준화 기구임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'15년부터 외산 장비의 의존율을 낮추기 위해 방법·방재, 교육 등 정보시스템을 연계·활용하여 다양한 도시상황을 관리하는 기술인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을 개발해 왔다.

-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은 108개의 지자체에 보급*하였고, 해외수출 기반 마련 및 확산을 위해 약 3년 동안 SG20 회원국**들과 협력해 표준 요구사항을 보완한 끝에 국제표준으로 제정되었다.

* (국내)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을 통해 서울시 등 보급('15~'21년)
(국외) 필리핀, 중국, 인도네시아, 터키 등 보급('25년 기준)

** 스페인, 일본, 중국 등 47개국('23년 기준)

-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은 도시데이터 수집, 분석, 활용,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갖춘 도시 관리를 위한 플랫폼으로 시간 및 위치기반의 실시간 상황 정보 처리 기능을 통해 도시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인다.

- 아울러, GIS 기반의 단일 아이콘 형태로 상황 정보를 시각화하여, 재난이나 긴급 상황 발생 시 담당자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- 국토교통부 윤종빈 도시경제과장은 “이번 국제표준 제정은 전 세계 도시 간 상호 호환성을 향상시켜 국내 우수한 스마트도시 관련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할 것” 이라며,
- “앞으로도 국내 스마트도시 산업 발전 및 해외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” 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도시정책관 도시경제과	책임자	과 장	윤종빈 (044-201-4845)
		담당자	사무관	양승길 (044-201-3713)
<공동>	스마트도시협회 사업본부	책임자	본부장	최지원 (02-3667-5005)
		담당자	과 장	김수지 (070-5158-4595)

참고1

스마트도시 표준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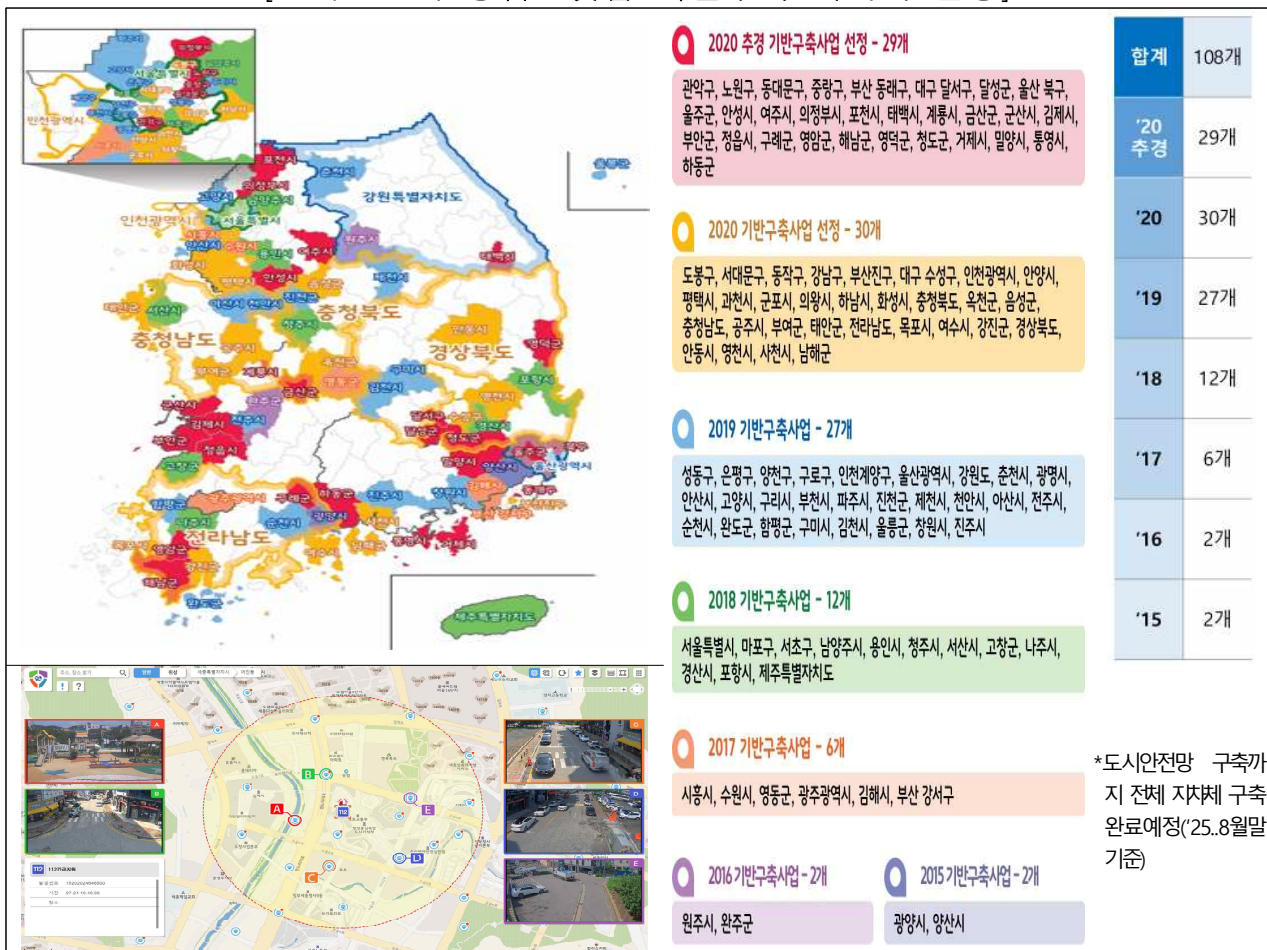
- **(표준개요)** 스마트도시 분야의 공통적이고, 반복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 효율성, 안정성, 편의성을 위해 이해관계자 간 합의한 약속된 규칙
 - * 일반적으로 표준이 '사용'의 편리성을 위한 것이라면, ICT 표준은 시스템 또는 단말기 간의 '통신 즉, 커뮤니케이션'을 원활하게 하는 '상호운용성' 제공이 목적(ICT 표준화 전략)
 - 시스템으로서의 스마트도시 기술 및 디바이스와 서비스 간 상호운용성 제공을 위해 정보교환 및 처리를 위한 통일된 규격
- **(중요성)** 표준은 스마트도시의 규칙을 정하고, 산업 주도권 및 시장 확보를 위한 직접적 기회 제공
 - *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기술의 표준 선점자는 스마트시티 관련 디바이스 및 서비스 시장을 주도할 수 있어 표준화 논의 참여는 매우 중요
 - 국제표준화는 기술통합,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 증대로 인해, 시장 선점 및 규모를 키우는 효과 발생
- **(표준화성과)** 국제공식표준 9건, 국제사실표준 4건, KS표준 4건, 국내 단체표준 36건 총 53건 국내외 표준 개발



참고2

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개요

- **(정의)** 다양한 도시상황 관리 및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을 위한 핵심기술인 기반 소프트웨어
 - **(연계서비스)** 112 영상·출동, 119 출동, 재난재해, 사회적약자 안전, 시설물관리, 범죄자추적, 쓰레기관리, 환경모니터링, 외국 관광객 도우미
- **(추진경과)** ① 플랫폼 개발 → ② 국내(지자체) 확산 → ③ 국제표준화
 - **(플랫폼 개발)** 정부 R&D 과제로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개발('15년~)
 - **(국내 확산)** '15년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을 통해 국내 보급을 시작하여 '21년까지 108개 지자체 대상으로 플랫폼 구축 후, 도시안전망으로 확대하여 '25년 기준 전체 지자체 구축 완료예정
[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지자체 현황]



- **(국제표준화)** '21년 ITU-T SG20에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신규 표준화 제안 및 회원국 요구사항을 수정·보완하여 '25년 제정 완료

참고3

스마트도시 플랫폼 표준 요약서

-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(EMM 플랫폼)은 수집, 분석, 활용,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갖춘 도시 관리를 위한 플랫폼
 - 실시간 상황 정보(시간 및 위치 기반) 처리 기능을 통해 도시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개선
 - 신속하게 상황 정보를 식별할 수 있도록 GIS 기반의 단일 아이콘 형태로 화면에 표출되어 사용자의 편의성에 맞춰 정보의 취사선택 가능
 - 재난 혹은 긴급 상황 발생 시, 관련 담당자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

[EMM 플랫폼 개요]



[EMM 플랫폼의 4가지 주요기능]

- **(Event Broker)** 사용자-담당자(이해관계자) 간 메시지를 통한 실시간 현황 공유 및 이벤트 포함 날씨, 과거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 수집
- **(Event Handler)** 이벤트 유형과 처리 방법 결정 및 이벤트 추적, 관리
- **(The Real Time Event Monitor)** GIS와 카메라로 수집된 내용들을 사용하여 현황을 표시하며, 감지 즉시 모니터링 진행
- **(WorkFlow Manager)** 데이터 제공, 플랫폼 설정 및 관리